

한국십진분류법의 한의학분야 細目 분류에 관한 고찰

엄석기 · 맹웅재*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Oriental Medicine Section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Seok Ki Eom, Woong Jae Maeng*

Department of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l, Wonkwang University

Before the current western medicine was spreaded out in the world as the main stream, each country had treated diseases with the medicine of their own and the traditional medical books, which are so characteristic, are handed down. Considering the earnest assignment to do in Korean medical of this age and one of the tendencies of medical circles in the world is putting together the current medicine with the traditional medicine, the production and spread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technical books which is contained the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he present condition of modern chinese medicine, and the future of it, must be settled without delay.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oriental medicine section developed in the range of the simple system before the time of flowering, since then the western medicine had grew as the main current in medicine in Korea. But until now the rational and realistic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changeable time isn't be established, so setting up one of the classification systems for medicine section, it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lassification system for medicine section. Hereupon, the result was made after researching the changes of modern classification system for korean and studying on the changes of classification system for oriental medicine section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ey words : Oriental Medicine Section, Classification System,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Library classification

서 론

현대 서양의학이 전세계적인主流 의학으로 보급되기 전까지 각 나라는 고유의 전통의학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하여 왔으며 그 특색을 간직한 전통의학서적을 발간하여 전해오고 있다.

한의학은 한국의 전통의학으로 현재도 정규의료제도의 한 축으로 발전중이며,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및 실험의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논문 혹은 서적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전래의 전통의학서적은 크게 중국의 의학서와 우리나라 사람이 저술한 의학서의 두 가지로 구별하여 볼 수 있는데, 1920년대까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저술한 의학서적은 약 150여종이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의 한의학 발전과 의학 및 약학 분야의 전통의학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한의학 관련 서적의

비약적 증가를 가져왔다. 최근의 한의학전문도서관의 장서수를 살펴보면 경희대학교 한의학도서관의 장서가 약 23,375권¹⁾, 동국대 경주 한의학도서관의 장서가 약 19,000권²⁾,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도서관의 장서가 21,000여권³⁾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대 한국 의료계의 절실한 과제이며 세계의료의 전반적인 발전 추세 중의 하나가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양자의 접목을 통하여 의료의 질적발전을 이루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전통적 한의학의 특성 및 현대 한의학의 발전 현황과 미래 한의학의 발전상을 담아낼 수 있는 한의학전문서를 위한 표준도서분류법의 제작과 보급은 시급한 문제이다. 한의학 도서분류법은 개화기까지 단순한 단식목록의 범주에서 발달하였고, 서양의

* 교신저자 : 맹웅재,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chundam@wonkwang.ac.kr, Tel : 063-850-6838

· 접수 : 2004/01/15 · 수정 : 2004/02/26 · 채택 : 2004/03/22

1) <http://omc.kyu.ac.kr/html/student/student02.php>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홈페이지 중 학습/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2) <http://libk.dongguk.ac.kr/file/km.htm> ; 동국대학교 한의학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3) http://www.dhu.ac.kr/new_home/space/campus/library.html ; 대구한의대학교 홈페이지 중 종양도서관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학이 의학의 주류로 발달하기 시작한 개화기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는 서부분류에 있어 한의학의 특징 및 시대 변화에 근거한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분류 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의학 분류 세부항목 중의 하나로 설정하여 의학분류법의 세부분류 원칙에 근거하여 분류하는 상황이다. 현대 도서분류법에서의 한의학 문헌분류에 관한 연구로는 권영규의 KDC 제3판의 한의학분야 항목정의 문제를 제기한 “한국십진분류법(KDC)의 한의학분류에 관한 소고(1988)⁴⁾” 와 KDC 제4판의 개정 작업에 관한 한의계의 의견을 제시한 “한국도서분류법의 한의학분야 개정안에 관한 연구(1996)⁵⁾” 및 이선영의 韓中日 및 臺灣의 도서분류법 중 한의학문헌 분류를 비교 검토한 “漢醫學 文獻分類展開에 關한研究(1993)⁶⁾” 등이 있으나, 과거와 현대 및 미래의 한의학 전문서를 전문적·계통적으로 분류하며 한의학 연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한의학 표준도서분류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1999년 《中國圖書館分類法(제3판)》의 R 醫藥·衛生 항목을 기초로 하여 더욱 확충 발전시킨 《中國圖書館分類法·醫學專門分類表》⁷⁾를 발행하여 의학출판물 분류의 표준화·전문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한국의 현대 도서분류법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현재 한국의 국가표준도서분류법인 한국십진분류법 중의 한의학분야 문헌분류방법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몇가지 소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론

1. 현대 한국 표준도서분류법 발전개략

우리나라 최초의 단식 도서목록으로 알려진 고려시대의 <初雕大藏目錄> 아래로 우리나라에서는 四部分類法 체계의 목록⁸⁾ 및 非四部分類法 체계의 목록⁹⁾ 등이 조선말의 개화기까지 지속적으로 빌행되었다. 도태현은 당시의 목록에 대하여 “현대적인 개념의 목록규칙이 도입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체제나 형식을 달리 하는 수다한 목록들이 편찬되었다. 이 목록들은 그 편찬시기나 목

4) 권영규, 한국십진분류법(KDC)의 한의학분류에 대한 소고, 동서의학 13권 3호, (대구: 경산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1988)

5) 권영규, 한국도서분류법의 한의학분야 개정안에 관한 연구, 동서의학 21권 2호, (대구: 경산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1996)

6) 이선영, 한의학문헌분류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1993)

7) 中國圖書館分類法編輯委員會·中國醫學科學院信息所圖書館, 中國圖書館分類法·醫學專門分類表, (북경: 북경도서출판사, 1999)

8) 도태현,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3), p21. “대표적 예로 《奎章總目》, 《鏤板考》, 《海東繹史》, 《藝文志》, 《帝室圖書目錄》, 《朝鮮圖書解題》,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 《朝鮮古書目錄》 등을 들 수 있다. 사부분류법의 주류구분인 경사자집 이하의 세구분(細區分)은 목록들마다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세구분에 대한 확정된 기준이 없었던 시기에 편찬자가 전례를 참고하고 문헌의 분포나 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세구분을 나름대로 정한 때문이라 생각된다.”

9) 앞의 책, pp21-22.

“사부분류법 외의 분류체계로 배열된 목록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고려시대의 불전 목록 : 《初雕大藏目錄》, 《新編諸宗教藏總錄》, 《再雕大藏目錄》

② 기타 비사부분류법 체계의 목록 : 《敬事撮要》의 冊板目錄, 《弘齋全書》, 《叢書標記》, 《海東文獻總錄》, 《練菴室記述》, 《文藝典故》, 《增補文獻備考》, 《藝文考》, 《學部編輯局書冊目錄》 등.”

적, 수록범위, 대상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체계나 배열체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서명을 표목으로 한 책자형 단식목록이라는 공통성이 있다. 즉 이 시기의 목록은 목록의 기능 중 검색기능은 대단히 제한적이었으며 식별기능이나 재고확인 기능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¹⁰⁾ 라고 설명하여, 대부분의 목록이 각각의 배열체계에 따라서 서술되었으나 주로 해당문헌을 다른 문헌으로부터 식별하는 정도의 기능을 가졌음을 설명하고 있다.

개화기 이후 일본에 의하여 새로운 근대적 분류법이 도입되었으며, 해방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서관학이 도입·교육되면서 현대적인 분류법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4년 한국십진분류법 초판을 발행하면서 표준도서분류법 발전단계로 진입한다. 이 시기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목록규칙의 발전단계를 도태현은

현재까지 밝혀진 우리나라 최초의 목록에서부터 현대적 개념의 목록규칙에 이르기까지 목록규칙의 구성이나 내용적 특성을 중심으로 새로이 시대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단식목록 시기 : 1923년 이전
- ② 목록규칙 도입시기 : 1923년부터 1954년 이전까지
- ③ 국제 표준화 시기 : 1954년부터 1980년 이전까지
- ④ 자동화목록 시기 : 1980년부터 현재까지¹¹⁾

와 같이 4단계의 시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저자는 현대 분류법의 도입 및 전개와 한국십진분류법의 발전 개략 두 부분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현대 분류법 도입 및 전개

(1) 도입기

① 해방이전

개화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간혹 중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서구의 출판과 접하였으나 직접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으며 서양의 목록규칙이 도입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¹²⁾ 해방이전 일제시대에는 모든 문화활동이 정체되던 시기로 도서관에 관한 연구나 교육이 시행된 바가 없고, 주요한 목록등이 편찬된 바도 없다.¹³⁾ 주로 일인들에 의한 근대적인 도서분류표의 도입이 있었는데, 오동근 등은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분류법은 서양 학문의 도입과 함께 개화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십진식으로 전개된 조선총독부 도서관분류법과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華한서분류표(和漢書分類表) 그리고 미국의회도서관분류법(LCC)와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양서분류표(洋書分類表)이다. 이러한 분류표들은 일제 시대 일본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로 해방과 더불어 도태되었다.¹⁴⁾”라고 하여, 일제시대에 부분적으로 사용되다가 해방과 더불어 도태되었음을 설명한다.

② 해방이후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도서관학은 日人们이 관리하던 도서관을 인수하여 새로운 운영체제를 갖추는 과정을 통하여 발달하기

10) 앞의 책, pp12-13.

11) 앞의 책, p12.

12) 앞의 책, pp11-12.

13) 정필모, 문헌정보학원론,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1996), p209.

14) 오동근·배영활·여지숙 공저, KDC의 이해, (대구: 도서출판 태일사, 2002) p23.

시작한다. 정필모는 당시의 상황을 "1945년 8월에 조선총독부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기구를 개편하고, 1946년 4월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조선도서관학교(후에 국립도서관학교를 개칭)를 설치하여 현직 司書들에 대한 도서관 교육을 실시하였다. --- 국립도서관학교는 1946년부터 1950년 6.25동란으로 폐교되기 까지 5회 7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 1946년에서부터 1950년까지 '국립도서관학교'와 단기과정이 개설되었던 시기는 우리나라 '도서관학의 발아기'라고 볼 수 있다.¹⁵⁾" 라고 하여,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아기로 규정한다.

(2) 주요 현대도서분류법 전개

해방이후 주로 사용된 도서분류표에 관해서는, 오동근 등은 "해방이후에는 한국인에 의해 몇몇의 주요분류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표와 고재창의 한은(韓銀)분류표, 국방연구원의 국연(國研)십진분류표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십진분류표는 1950년대 국립 도서관을 위시한 많은 공공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분류표가 되었다.¹⁶⁾" 라고 하였다. 이중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 분류법들은 1964년 5월에 발행한 한국십진분류법(KDC) 초판의 동양관련 분야 세부항목 설정에 있어서의 중요기초자료가 되었다.

2) 한국십진분류법(KDC)의 발전 개략

1964년 5월에 초판 발행한 한국십진분류법(KDC)은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에 의해 발행과 개정이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표준분류표로, 그에 대한 영문표기인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의 머리글자를 따 통상 KDC로 약칭하고 있다.¹⁷⁾ KDC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채택하고 있고, 상당수의 대학도서관에서도 동양서의 분류에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분류표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목록(<http://www.nl.go.kr>)과 《한국문헌목록정보》(Korean MARC on Disc)의 편록 데이터에는 KDC를 사용한 분류 기호가 포함되어있다.¹⁸⁾

(1) 편찬 배경

KDC는 전통적인 분류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당시에 도입된 듀이십진분류법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사 및 문화에 맞게 수용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이에 대한 KDC의 初版序의 내용을 살펴보면 '今世紀로 접어들면서 西歐의 새로운 文明이 이 땅에 물결치기 시작했고, 새로운 內容의 書籍이 傳來의 그것을 量적으로 누르게 됨에 이르러, 이에 對處할 새로운 分類原理의 樹立이 우리 圖書館 當事者들 사이에 時急을 要하는 문제의 하나로서 摳頭되고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우리나라에서도 相當數의 圖書館이 이 듀이의 十進分類法을 移入·借用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그 內容이 巨細 남김이 없이 一切를 包括해 있다 할지라도 그 主題의 配列順位에 있

15) 정필모, 문현정보학원론,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1996), pp211-212.
16) 오동근·배영활·여지숙 저자, KDC의 이해, (대구: 도서출판 태일사, 2002) pp23-24.

17) 앞의 책, p23.

18) 앞의 책, p3.

어서나, 또한 地理·言語·宗敎 등 그 細部區分에 있어 所詮 우리와 우리 아닌 것, 나아가서는 東洋과 西洋의 거리에서 오는 엄청난 均衡의喪失을 우리로서 痘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음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¹⁹⁾" 라고 하였고, 오동근 등은 "1960년대이후 미국의 도서관학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소개된 듀이십진분류법(DDC : Dewey Decimal Classification)이 대학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 그러나 DDC는 서양중심의 전개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²⁰⁾" 라고 하였다. 즉 듀이의 십진분류법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동서양의 학문차이로 인한 사용상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으며, 도서분류상의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한 표준도서분류법을 제작할 필요성이 시대적으로 강하게 요구되었음을 보여준다.

(2) 편찬 목적

한국십진분류법은 서양의 현대화된 분류법을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실정에 적합한 분류법을 편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십진분류법 초판 서에 보면 '듀이의 十進分類法이 갖는 長點을 最大限으로 살리고, 分類記號의 配定과 順位의 次序에 있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경우에 생길 不得已한 矛盾을 最小限으로 是正해서, 하나님의 標準을 만들어 보고자 한 것이 곧 이 韓國十進分類法을 낳게 한 動機다.²¹⁾" 라고 하여, 듀이의 십진분류법을 기초로 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분류표를 만들고자 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에 합당한 표준분류법을 만들기 위해 동서양의 다양한 문헌들을 참고하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표1과 같다.

표 1. 한국십진분류법 초판 편찬 상의 참고문헌

가. 《한국십진분류법(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약칭 KDC(P))》
동 나. 《한화도서분류법(漢和圖書分類法)》
다.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편 《한적분류법(漢籍分類法)》
양 라. 《일본십진분류법(Nippon Decimal Classification, 약칭 NDC)》
마. 기타 중국의 주요분류법과 100여종의 고서목록과 장서목록
서 가. 《Dewey십진분류법, 약칭 DDC》
나. 《미국국회도서관분류법/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약칭 LC》
양 다. 《국제십진분류법(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약칭 UDC)》

(3) 기본분류체계

한국십진분류법 초판의 분류표 편찬과정에 대하여 《개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²²⁾에서는 '대다수 전문가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DDC의 주류서열을 근거로 하여 요목표를 초안하되 응용과학은 기술과학으로 내용을 변경하고 DDC의 구미중심을 동양중심으로 하며, 비논리적인 체계와 구분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주요항목이 강목 또는 요목 사이에 병치한 것도 이를 대폭 수정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여 세부요목에 대한 단일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초안을 근거로 자문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DDC 주류서

19) 韓國圖書館協會 分類委員會 編, 韓國十進分類法 第4版 第1卷 本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1), pix.

20) 오동근·배영활·여지숙 저자, KDC의 이해, (대구: 도서출판 태일사, 2002), p2

21) 韓國圖書館協會 分類委員會 編, 韩國十進分類法 第4版 第1卷 本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1), pix.

22)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발행 이후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의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1997년 5월에 간행한 한국십진분류법 제 4판에 대한 집필 규정 및 전반적인 저술에 대하여 종합정리한 해설서이다.

열을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는 안과 초안의 강목이 하가 대폭 변경되었으므로 각 류만을 DDC와 같이 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안이 대두되었다. 이에 분류분과 위원회는 강목이 하까지 DDC를 모방하면 분류법의 제정이 아니라 DDC의 동양부분 전개에 불과한 것이 되고 우리 실정에 DDC가 맞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맹종하는 것은 자주성을 상실하는 모순이라는 이유를 들어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에 대해 많은 찬성을 얻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동위원회에서는 DDC, EC, LC, SC, NDC, KDC(P) 등을 비교 검토하여 어학과 문학을 접근시키고 사회과학과 역사는 조기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DDC와 같이 채택하기로 하였다.²³⁾ 라고 하였고, 오동근 등은 “KDC의 주류는 기본적으로 DDC의 주류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언어와 문학을 근접시킨 점이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KDC는 상당 부분이 DDC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강목의 일부분과 요목 및 세목의 상당 부분은 일본십진분류법(NDC)을 따르고 있다. 아무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 한국과 동양 관계 분야의 주제는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표와 구개명의 한화도서분류법(漢和圖書分類法),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의 한적분류법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사회과학의 강목은 미국의회도서관분류법(LCC), 의학분야의 요목은 국제십진분류법(UDC)을 따르고 있다.²⁴⁾” 라고 하여, KDC가 DDC를 근본으로 하면서도 각 항목별 한국적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행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참고문헌을 적용된 분야별로 구별하여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 2. 한국십진분류법 초판 편찬 상의 참고문헌 적용분야

1. 기본적인 류(類) · 강(綱) · 목(目)의 분류체계

가. «Dewey십진분류법, 약칭 DDC»에 근거

나. «일본십진분류법(Nippon Decimal Classification, 약칭 NDC)»을 참고

2. 세목(細目)의 구분배열

가. 기본적인 배열은 DDC와 NDC 또는 양자를 혼합하여 편찬

나. 기술과학의 강(綱)의 순서와 체계, 수학 · 물리학 · 농학의 목(目)의 배열순서 경제학의 목(目)의 구분배열은 LC를 참고

다. 의학분야는 세목까지 UDC를 그대로 참고

라. 예술기법 아래의 세목은 UDC를 참고

마. 한국 및 동양관계 주제는 KDC(P)와 한화도서분류법 · 한적분류법을 일부분조

이러한 과정 및 문헌을 참고로 하여 편찬된 KDC의 主類 및 綱目의 기본분류체계는 표3과 같이 결정된다.

표 3. 한국십진분류법(초판)의 主類 · 綱目의 기본분류체계표

CCO (총 류)	500 (기술과학)
010 (도서학, 서지학)	510 (의학)
020 (문현정보학)	520 (농업, 농학)
030 (백과사전)	530 (공학, 공업일반)
040 (강연집, 수필집, 연설문집)	540 (건축공학)
050 (일반연속간행물)	550 (기계공학)
060 (일반 학회, 단체, 협회, 기관)	560 (전기공학, 전자공학)
070 (신문, 언론, 저널리즘)	570 (화학공학)
080 (일반 전집, 총서)	580 (제조업)
090 (향토자료)	590 (가정학 및 가정생활)

23)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편, 개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7), pp1-2.

24) 오동근·배영활·여지숙 공저, KDC의 이해, (대구: 도서출판 태일사, 2002), p24.

100 (철학)	600 (예술)
110 (형이상학)	610 (건축술)
120	620 (조각)
130 (철학의 체계)	630 (공예, 장식미술)
140 (경학)	640 (서예)
150 (아시아철학, 사상)	650 (채화, 도화)
160 (서양철학)	660 (사진술)
170 (논리학)	670 (음악)
180 (심리학)	680 (언극)
190 (윤리학, 도덕철학)	690 (오락, 운동)
200 (종교)	800 (문화)
210 (비교종교)	810 (한국문화)
220 (불교)	820 (중국문화)
230 (기독교)	830 (일본문화)
240 (도교)	840 (영미문화)
250 (천도교)	850 (독일문화)
260 (신도)	860 (프랑스문화)
270 (바라문교, 인도교)	870 (스페인문화)
280 (회교)	880 (이탈리아문화)
290 (기타 제종교)	890 (기타 제문화)
300 (사회과학)	700 (언어)
310 (통계학)	710 (한국어)
320 (경제학)	720 (중국어)
330 (사회학, 사회문제)	730 (일본어)
340 (정치학)	740 (영어)
350 (행정학)	750 (독일어)
360 (법학)	760 (프랑스어)
370 (교육학)	770 (스페인어)
380 (종속, 민족학)	780 (이탈리아어)
390 (국방, 군사학)	790 (기타 제어)
400 (순수과학)	900 (역사)
410 (수학)	910 (아시아)
420 (물리학)	920 (유럽)
430 (화학)	930 (아프리카)
440 (천문학)	940 (북아메리카)
450 (지학)	950 (남아메리카)
460 (광물학)	960 (오세아니아)
470 (생명과학)	970 (양극지방)
480 (식물학)	980 (자리)
490 (동물학)	990 (전기)

(4) 발행의 역사

KDC는 1964년 초판, 1966년 제2판(수정판), 1980년 제3판, 1996년 제4판이 한국도서관협회에 의하여 발행되었다.

① 초판

1964년 5월에 이루어진 한국십진분류법의 초판 발행에 대하여 «개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분류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55년부터로서 도서분류법 제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서관계의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본격적인 편찬작업을 위해 1963년 초 분류분과위원회에 편찬사업계획을 위촉하였고 동년 2월 4일에 제1차 분류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초안작성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였다. --- 최종적으로 주류의 구분 및 배열순서가 결정되어 1963년 3월에 본표작업에 착수하여 동년 10월에 각 항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색인작성 작업을 거쳐 1964년 5월에 한국십진분류법 초판이 간행되었다.²⁵⁾ 라고 하였고, 오동근 등은 “한국도서관협회는 1963년 분류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실정에 알맞은 현대적이며 실용적인 분류표를 편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십진분류법의 초판은 1년여에 걸친 의욕적인 작업 끝에 1964년 5월에 발행되었다.²⁶⁾”라고 하

25)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편, 개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7), pp1-2.

여, 1955년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후 1963년 분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편찬 작업에 착수하여 1964년에 초판 발행하였음을 설명한다.

② 제2판(수정본)

제2판(수정본)의 발행에 대하여 <개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에서는 '제2판(수정판)'은 초판의 분류표가 세목의 전개에 약간의 모순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일부 오자(誤字)와 탈자(脫字)가 있었으며 각 세목의 범주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 분류 표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1966년 5월에 발행되었다. 그러나 초판 발행 이후 2년 밖에 안 된 분류법을 충분히 사용해 보지도 않고 전면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수정의 범위를 가능한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즉 요목까지는 변경 및 이동을 하지 않고, 세목의 전개나 변경도 극도로 모순되고 불합리한 부분만을 정정하되 가능한 상세한 주기를 삽입하고 오자 및 탈자를 수정하고 분류참조를 재검토하여 필요부분만 증설하는 선에서 끝내기로 하였다. 수정판 발행 이후 각종 도서관이 증설되고 기준 도서관들이 종전에 사용하던 분류법을 본 분류법으로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분류법 책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수정판 3쇄(三刷)분을 내기에 이르렀다.²⁷⁾ 라고 하여, 주류 및 요목의 변경은 하지 않고 세목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고 오자 및 탈자를 수정하며 분류참조를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 증설하는 선에서 이루어져 1966년 5월에 발행하였음을 설명한다.

③ 제3판

제3판의 발행에 대하여 <개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에서는 '제3판은 제2판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문의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의 분류표를 유지하기 위해 1973년부터 검토되었다. 당초 제3판의 개정범위는 대폭적인 수정보완을 위해 분류표 전반에 걸쳐 완벽한 개정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그 작업량이 방대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완벽한 개정은 제4판으로 미루기로 하고 제2판의 뚜렷한 미비부분과 모순된 내용을 최대한 보완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비약적인 학문발전으로 인하여 많은 내용을 개정하여 1980년 3월에 발행하였다.²⁸⁾ 라고 하였으며, 오동근 등은 "1980년대에는 학문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제3판을 발행하게 되었는데, 제3판에서는 이전 판의 기본적인 구성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과 모순점의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한편 KDC는 제3판에서부터 본표와 상관 색인의 두권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²⁹⁾"라고 설명한다. 즉 초기의 목표는 완벽한 개정이었으나 결국은 제2판(수정판)의 기본적인 구성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과 모순점을 개선하여 1980년에 발행하였음을 설명한다.

④ 제4판

제4판의 발행에 대하여 <개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에서는 '제4판은 3판이후 일선 도서관 사서들의 분류법 개정에

26) 오동근·배영활·여지숙 공저, KDC의 이해, (대구: 도서출판 태일사, 2002), p24.

27)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편, 개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7), p2.

28) 앞의 책, p2.

29) 오동근·배영활·여지숙 공저, KDC의 이해, (대구: 도서출판 태일사, 2002), p24.

대한 요구와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90년 4월 분류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4판의 개정방침은 류(類), 강(綱), 목(目)의 변경은 가능한 피하되, 과학기술분야 등 급변하는 주제는 필요한 세목(細目)을 과감히 개정 전개 세분하고, 새로운 학문발전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시켜 새로운 항목을 배정함은 물론 적절하지 못한 구항목들은 신항목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개정방침을 기본으로 하여 DDC 20판(1989년)과 <일본십진분류법>9판 시안 등을 참고하고 일선 도서관 분류담당사서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1996년 8월에 간행하게 되었다.'라고 하여, 제3판의 류(類)·강(綱)·목(目)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새로운 학문 발전의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바탕으로 특히 세목 부분의 전개에 중점을 두어 수정하여 1996년에 간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5) 사용현황

최근의 150개 대학도서관에 대한 분석에서는 2001년 현재 동양서 분류에는 45.3%, 서양서 분류에는 26%의 도서관이 KDC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³⁰⁾

2. 한국십진분류법(KDC) 中 韓醫學 분류법 전개의 현황

1) 한의학의 主類·綱目·要目的 배정

KDC는 십진법에 따라 지식의 전분야를 10개로 대별하고 이를 기초구분으로 삼았다. 이 기초구분을 主類(Main classes)라고 하고 이를 다시 100으로 구분하여 綱目 또는 綱(Divisions)이라 하고 이를 다시 1000으로 구분하여 要目 또는 目(Sections)이라 한다. 그리고 요목이하에도 필요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細目(Subsections)이라 한다. 초판 序에 의하면 의학분야의 분류는 국제십진분류법(UDC)의 분류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며, 한의학은 KDC의 초판에서 제4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主類는 기술과학(500)·綱目은 의학(510)·要目은 한의학(519)에 배정되어 의학의 일부요목으로 분류되어있는 실정이다.(표4. 참고)

표 4. 한의학의 主類·綱目·要目的 배정

主類	500 기술과학
綱目	510 의학
要目	519 한의학
細目	519.1 한의기초학

이러한 한의학분야에 대한 主類·綱目·要目的 문제점에 대하여, 임동빈은 전통적인 四部分類法 전개하의 古書가 KDC의 분류표에 어떻게 적용되어 분류되었가를 연구한 논문에서 "醫家類도 현대 용어와 접근시킬 수 있는 추측도 하지 않고 醫家 본래의 전문적인 주제 파악이 어려워서 인지는 몰라도 정확한 주체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KDC에서는 醫家類에 漢方醫學(519)을 무리하게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 느낌이 든다.³¹⁾"라고 하였고, 권영규는 "KDC의 技術科學類(500)에서 1개 目을 부여한 漢醫學은 韓國十進分類法이 韓國과 東洋關係의 展開를 為해 考案되어 韓國固有의 特性을 많이 반영시키고 있는데 반해 西洋醫學

30) 앞의 책, p26.

31) 임동빈, 古書의 十進分類法의 接近, (청주: 청주대학교, 1985), p22.

의 展開方式을 그대로 適用시키고 있다.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總類, 哲學, 宗教, 社會科學, 藝術, 語學, 文學, 歷史 等 각 部門에 있어서 韓國關係와 東洋關係의 主題에 優位를 주고 類·綱·目的區分 및 排列를 合理的이고 分類의 實際에 適合하게 하여 韓國과 東洋의 固有한 學問을 總括하여 韓國本位·東洋本位로 編纂하였는데 漢醫學만 西洋醫學의 展開方式을 따르도록 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³²⁾" 라고 하였으며, 또 "현재의 韓國十進分類法은 韓國 및 東洋關係 優位原則에서 韓醫學이 排除됨으로써 韓醫學의 基礎項目이 不足하고, 展開方式도 學問的 體系가 相異한 西洋醫學과 同一視 取扱함으로써 韓醫學의 論理에 맞는 主題의 分類가 어렵게 되어 있으며, 수많은 古典을 吸收할 수 없으며, 東西醫學의 比較研究도 그 項目을 論理的으로 展開하기에 未洽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³³⁾" 라고 하여, KDC가 韓國 및 동양관련 분야의 전통성을 수용하는 합리적인 분류법을 편찬함을 주목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분야는 분류 배정에서부터 서양의학 위주의 분류 중 한 要目으로 세분하였으며, 한의학의 세부 전개에 있어서도 서양의학의 세부 전개를 따르게 되어 있어 한의학의 학문성 및 현장성을 살리기가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다.

요록과 세목의 배정에 중점을 두어 수정한 제3판 및 제4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전면 수정되지 않았다.

2) 510 의학 綱目的 要目 分류 변화

의학(510)의 要目은 초판에서 제4판에 이르기까지 표5와 같이 변화한다. 즉 초판 및 제2판(수정본)까지는 要目 분류 배정의 변화는 없으나 제3판 발행시에 기존의 요록에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변화가 나타난다. 519 한의학은 제3판까지는 한방의학으로 명명되었다가 제4판에서 한의학으로 요록명칭이 변경된다.

표 5. 510 의학 綱目的 要目 分류 변화

要目	초판	제2판(수정본)	제3판	제4판
511	基礎醫學	基礎醫學	基礎醫學	基礎醫學
512	臨床醫學	臨床醫學	臨床醫學	臨床醫學
513	內科學	內科學	內科學	內科學
514	外科學	外科學	外科學	外科學
515	齒科醫學	齒科醫學 · 耳鼻喉 喉科學 · 眼科學	齒科醫學 · 耳鼻喉 喉科學 · 眼科學	齒科醫學 · 耳鼻喉 喉科學 · 眼科學
.1	齒科醫學	齒科醫學	齒科醫學	齒科醫學
.2	口腔醫學	口腔醫學	口腔醫學	口腔醫學
.3	喉頭科學	喉頭科學	喉頭科學	喉頭科學
.4	耳科學	耳科學	耳科學	耳科學
.5	鼻科學	鼻科學	鼻科學	鼻科學
.7	眼科學	眼科學	眼科學	眼科學
516	婦人科	婦人科 · 產科學 · 小兒科學	婦人科 · 產科學 · 小兒科學	婦人科 · 產科學 · 小兒科學
.5	產科學	產科學	產科學	產科學
.9	小兒科	小兒科 및 老人病	小兒科 및 老人病	小兒科 및 老人病
.98		老人病 · 老人醫學	老人病 · 老人醫學	老人病 · 老人醫學
517	衛生學	衛生學 · 豫防醫學	衛生學 · 公共醫學	衛生學 · 公共醫學
518	藥學	藥學	藥學	藥學
519	漢方醫學	漢方醫學	漢方醫學 (韓醫學, 漢醫學)	한의학 (韓醫學, 漢醫學)

32) 권영규, 한국십진분류법(KDC)의 한의학분류에 대한 소고, 동서의학 13권 3호, (대구: 경산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1988), p41.

33) 앞의 책, pp47-48.

3) 519 한의학 要目의 細目

(1) 配列順序

519(한의학) 要目의 細目 配列順序를 제4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510 의학이 기초의학 · 임상의학 · 약학 · 보건위생학 · 특수 주제의 다섯가지 분류하에 배열된 것에 기초하여 519 한의학의 요록 또한 배열되었음을 표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 519 한의학 要目의 細目 配列順序

醫學		
511	基礎醫學	기초의학
512	臨床醫學	
513	內科學	
514	外科學	
515	齒科醫學 · 耳鼻喉科學 · 眼科學	
.1	齒科醫學	
.2		
510	喉頭科學	임상의학
.3	耳科學	
.4	鼻科學	
.5	眼科學	
516	婦人科 · 產科學 · 小兒科學	
.5	產科學	
.9	小兒科 및 老人病	
.98	老人病 · 老人醫學	
517	衛生學 · 公共醫學	보건위생학
518	藥學	약학
519	한의학 (韓醫學, 漢醫學)	특별 분류

한의학		
519.1	한의基礎學	한의학 기초
519.2	한의臨床學	
519.3-6	各科 한의학	한의학 임상
519.7	特殊한방主題 四象醫學	특별 분류
519.8	한의藥學	한의학 약학
519.9	鍼灸學	한의학 임상

(2) 分류의 변화

기본적으로 519(한의학) 要目의 細目 분류를 살펴보면, 초판은 서양의학의 분류체계 즉 511에서 518까지의 분류를 그대로 따르게 되어있고, 제2판부터 침구학이 519.9에 추가되어 분류되어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권영규는 "이러한 분류체계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학문체계가 상이한 점을 미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하여 한의학 관련 도서를 분류함에 있어서 KDC 분류는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의학분야에 필요한 항목이 양의의 분류에 없는 경우에는 분류가 불가능하고 한의학의 새로운 분야가 생겨도 분류할 항목이 없으며 특히 세분류는 각 대학의 사서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한의학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책이 각 대학의 KDC 세분류번호가 다르게 부여되거나 세분류를 하지 않고 대부분만 하여 분류의 효율성을 높고 있는 것이다.³⁴⁾" 라고 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제4판부터 한의학의 의견이 반영된 세목의 변경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십진분류법해설(개정 제4판)》에서는 "한

34) 권영규, 한국도서분류법의 한의학분야 개정안에 관한 연구, 동서의학 21권 2호, (대구: 경산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1996), p3.

의학관련서적의 증가를 반영하여 항목을 세분 전개하였으며, 분류항목의 세분전개시에도 양의학의 체계가 아닌 한의학 자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³⁵⁾”라고 설명한다.

한의학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세목 전개의 도입 과정에 대하여 권영규는 한의계에 적합한 분류법 확정을 위한 세가지 방법론이 제출되었는데 세가지 안은

1안: 도협 개정판(4판)에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안

2안: 한의계의 독자적인 자체분류법 제정을 위한 (가칭)한의과 대학도서관협의회 결성하는 안

3안: 중국도서분류법의 중의약학분류를 그대로 채택하여 이용하는 안

이를 논의한 결과 1안과 3안의 절충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도협의 초안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의 醫藥衛生분야(R) 중 中國醫學(2)분야의 분류를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개정에 대한 도협의 기본입장이 제3판의 불합리한 점은 개정하되 3판까지의 분류 취지는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목을 완전히 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양의의 분류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부분 중 전혀 불필요하거나 우리 체계와 상이한 분야는 삭제를 하되 최대한 양의의 분류도 살리도록 하고 여유항목에 우리체계에 필요한 분류를 첨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본입장에 따라 개정안 마련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가. 기존 도협초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양의항목을 한의에 그대로 적용가능하면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다.(예: 생리학, 해부학, 병리학 등)

나. 세부적인 항목은 되도록 전공분야로 집중시킨다.(예: 음양 오행론→생리학)

다. 한국적인 특성이 있는 사상의학을 신설하고 약물, 처방, 침법을 모두 여기에 집중되도록 한다.(예: 519.7 사상의학, 체질의학)

라. 질병별 세분에 있어서 양의병명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분과별로 양의병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한의증형별 질환항목을 신설하되 조기성을 위하여 가능하면 6번으로 통일되도록 한다.(예: 519.46, 519.56, 519.66, 519.696 예외: 519.35)³⁶⁾

라고 하여, 제4판 발행과정 중의 한의학계 의견 개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제1판부터 제4판까지의 519 한의학요목 세목변화는 표7과 같은데, 제4판에서야 한의학의 특징을 반영한 세목의 반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519 한의학 細目的 변화표

세목	초판	제2판(수정본)	제3판	제4판
519.1	漢醫基礎學 ¹⁾	漢醫基礎學 ¹⁾	漢醫基礎學 ¹⁾	한의基礎學 ¹⁾
519.2	漢醫治療學 ¹⁾	漢醫治療學 ¹⁾	漢醫治療學 ¹⁾	한의臨床學

35)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편, 개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7), p195.

36) 권영규, 한국도서분류법의 한의학분야 개정안에 관한 연구, 동서의학 21권 2호, (대구: 경산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1996), pp 9-10.

519.3				
519.4	各科 漢醫學 ¹⁾	各科 漢醫學 ¹⁾	各科 漢醫學 ¹⁾	各科 한의학 ¹⁾
519.5				
519.6				
519.7	漢醫衛生學	漢醫衛生學	漢醫衛生學	特殊 한방主題·四象醫學
519.8	漢醫藥學	漢醫藥學	漢醫藥學 ¹⁾	한의藥學
519.9	鍼灸學	鍼灸學	鍼灸學	鍼灸學

(2) 細분류의 변화

519 한의학 요목 자체의 세분류는 한의학에 대한 총론적 성격의 내용이 포함되는 요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초판에서 제3판까지는 세분류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으며 제4판에 이르러서야 표8과 같이 세분류항목을 제시하였는데 KDC 총론분류표의 일반적규정에 의하여 배열된 것이다.

표 8. 519 한의학 要目的 세분류 항목(KDC 제4판)

519	한의학 Oriental medicine, korean medicine
519.01	理論
	한방 基礎理論·總論的 著作 등을 포함한다.
519.011	한의학 醫經
	內經(黃帝內經)·素問·靈樞·難經·傷寒論·金匱要略·東醫寶鑑 기타 古典的 醫學書 및 解說書등 을 포함한다.
519.012	陰陽五行論
519.014	五運六氣論
519.016	四象論
519.019	기타 諸理論

4) 519.1 한의기초학 細目 세분류의 변화

한의기초학의 세분류에 대하여 초판부터 제3판까지는 “필요에 따라 511과 같이 세분 할 수도 있다”라고 하여 의학의 기본분류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판에서도 “臘臘學을 포함한다. 圖書館에 따라 511과 같이 細分할 수 있다.例: 한의 生理學 519.11”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511 기초의학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초의학은 주초 인체생리학(511.1)과 인체해부학(511.4)이 주를 이루는 목으로서 인체해부학과 인체생리학을 함께 다른 저작은 여기에 분류한다. 각과의학의 기초의학은 그 주제하에 분류할 수도 있다.³⁷⁾”라 하였고, 또 511 要目的 세목을 살펴보면 511.1 인체생리학, 511.2 인체생물리학, 511.3 인체생화학, 511.4 인체해부학, 511.5 병원미생물학, 511.6 병원기생충학, 511.7 면역학, 511.8 병리학, 511.9 실험의학으로 전개되어 있으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표9와 같은 519.1 한의기초학 세분류를 전개할 경우 사실상 제대로 한의기초학을 분류할 수 없다.

표 9. 511 기초의학 및 519.1 한의기초학 細目의 세분류(KDC 제4판)

511 기초의학	519.1 한의기초학
511.1	인체생리학
511.2	인체생물리학
511.3	인체생화학
511.4	인체해부학
511.5	병원미생물학
511.6	병원기생충학
511.7	면역학
511.8	병리학
511.9	실험의학
	(한의생리학)
	(한의생물리학)
	(한의생화학)
	(한의해부학)
	(한의병원미생물학)
	(한의병원기생충학)
	(한의면역학)
	(한의병리학)
	(한의실험의학)

37)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편, 개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7), p188.

5) 519.2 한의임상학 細目 세분류의 변화

519.2 세목은 초판에서 제3판까지는 한의치료학으로 명명되어있으며 세분류에 관해서는 “診脈을 포함한다. 필요에 따라 512와 같이 세분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다. 제4판에 이르러서야 한의임상학으로 명명되었으며, 한의치료학은 519.22의 세분류항목으로 전개한다. 또한 아래의 표10과 같이 세분류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 설정을 제시한다.

표 10. 519.2 한의임상학의 세분류(KDC 제4판)

519.2 한의임상학
519.21 診斷學
診脈法 · 痘症學 등을 포함한다. 512.1과 같이 細分한다. 예 : 한방尿検査法 519.2133
519.22 治療學 Clinical therapy [前 519.2]
512.2과 같이 細分한다. 예 : 한방救急處置 519.2133
519.23 藥物療法
519.24 理學療法
外治法인 按摩 · 指壓 · 附缸療法 등을 포함한다.
519.25 기타 療法
養生 · 長壽法 · 氣療法 · 房中術 · 民間療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제4판의 분류표를 살펴보면 519.2 분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519.2 분류전개의 근거가 되는 512 임상의학 항목의 내용 설명을 살펴보면 “일반적 개념의 진단 치료 간호에 관한 저작은 임상의학 아래에 분류하고, 특정 질병의 진단 치료 간호에 관한 저작은 해당 질병 아래에 분류한다³⁸⁾.”라고 하였고, 또한 “임상의학은 병의 종류, 환자의 성질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으로 내과학(513) 외과학(514) 치과학(515.1) 이비인후과학(515.3-5) 안과학(515.7) 산부인과(516.1-5) 그리고 소아과(516.9) 등을 포함한다. 이미 특정의과로 구분된 상기 임상의학분야는 해당 의과에 분류한다. 상기 특정 의과분야이외에도 비교적 새로이 등장한 의과로서, 한 가계와 개인의 건강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가정의학 항목을 새로이 마련하였고 가정의학은 512.7에 분류한다. ---, 단 내과진단학은 임상의학 아래의 512.1 진단학에 분류한다.³⁹⁾”라고 하였는데, 519.2의 한의임상의학의 세부 분류 또한 이 설명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512 임상의학의 세목을 살펴보면, 진단학(512.1) 512.2(일반요법) 512.3(약물요법) 512.4(理學요법) 512.5(기타요법) 512.7(가정의학) 512.8(간호학) 512.9(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의임상학도 이 분류에 근거하여 전개되었음을 표11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11. 512 임상의학 및 519.2 한의임상학 細目的 세분류(KDC 제4판)

512 임상의학	519.2 한의임상학
511.1 진단학	519.21 診斷學
511.2 일반요법	519.22 治療學
511.3 약물요법	519.23 藥物療法
511.4 理學요법	519.24 理學療法
511.5 기타요법	519.25 기타 療法
511.6	
511.7 가정의학	
511.8 간호학	
511.9 병력	

38) 韓國圖書館協會 分類委員會 編, 韓國十進分類法 第4版 第1卷 本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1), p471.

39)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편, 개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7), p190.

6. 519.3-6 각과 한의학 細目 세분류의 변화

519.3부터 519.6에 걸쳐서 설정된 각과 한의학의 세분류에 대하여 초판부터 제3판까지는 “필요에 따라 513-516과 같이 세분할 수도 있다”라고 하여 의학의 기본분류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판에서도 “513-516과 같이 세분한다. 예; 한의소아과 519.69⁴⁰⁾”라고 하여 기존의 분류전개와 차이가 없으나, “서양의 학의 병명으로 나타낼 수 없는, 한의학의 특수한 질환에 관한 저작은 각 과의 유사 주제하에 분류한다.⁴¹⁾”라고 하여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513-516 각각의 요목 전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513 내과학

- ▷ 특정 질병의 병리학과 치료법을 다룬 저작을 여기에 분류한다. 단 내과 진단학은 512.1 진단학에 분류한다.
- ▷ 특정 인체기관의 질병은 513.1-8에 분류하고, 다양한 병인으로 특정 인체기관이 아닌 전신에 발생하는 질병을 분류한다.

예 : 알레르기 질환 513.9 ;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513.928; 중독증 513.93 ; 풍토병 513.95 ; 기생충병 513.96 ; 전염병 513.97 ; 암 513.993

514 외과

- ▷ 외과는 외과기초학(514.1), 임상외과학(514.2) 정형외과(514.3) 피부외과(514.7) 그리고 국소외과학(514.9)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작업 과정에서 특정 인체기관의 외과학을 다룬 저작의 분류를 위하여 514.4 기관별 외과학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 ▷ 특정 인체기관의 손상과 상해의 외과적 수술이나 치료를 다룬 저작은 분류표상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514.4 기관별 외과학에 분류하고, 특정 기관질환의 외과적 수술 및 치료는 해당 내과학의 질환아래 분류한다.

예 ; 심장의 외과수술법 514.416 ; 폐기종의 외과치료 513.258

515 치과의학 이비인후과학 안과학

- ▷ 일반적으로 같은 범주의 의과로 묶여있는 이비인후과는 후두과학(515.3) 이과학(515.4) 비과학(515.5)로 나뉘어 배정되어 있다. 이비인후과를 전반적으로 다룬 저작을 여기에 분류한다.

516.1-8 부인과 산과학

- ▷ 여성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의과인 부인과와 산과학을 중심으로 분류항목이 배정되어있다.
- ▷ 인공수정은 516.47 여성불임증에 분류한다.
- ▷ 인공분만은 516.86 제왕절개에 분류한다.
- ▷ 소파수술은 516.88 인공유산에 분류한다.

516.9 소아과

- ▷ 일반적인 소아과와 더불어 소아를 대상으로 한 각 전문의과를 소아과 아래에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0) 韓國圖書館協會 分類委員會 編, 韓國十進分類法 第4版 第1卷 本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1), p523.

41)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편, 개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7), p195.

516.91-95에 분류한다.

516.99 노인병, 노인의학

▶ 간년기장애는 여기에 분류한다.⁴²⁾

와 같다.

513-516의 要目과 細目 및 그 내용설명을 근거로 하여 각과 한의학을 분류전개하여 보면 표12와 같이 분류 전개할 수 있다.

표 12. 513-516 및 519.3-6 각과 한의학의 세분류(KDC 제4판)

의학(513-516)	각과 한의학(519.3-6)	
세부 전개	세부 전개	
513 내과	513.1 심장 순환기계의 질환 513.2 호흡기계 질환 513.3 소화기계 질환 513.4 내분비선 질환 513.6 비뇨생식기관 질환 513.7 운동기관 질환 513.8 신경계능의 氣質性 질환 513.9 전신병 513.95 의료기상학	519.3 한의내과
514 외과	514.1 외기초학 514.2 임상외과학 514.3 정형외과 514.4 器官外외과학 514.7 피부병과 514.9 局所외과학	519.4 한의외과
515 齒科醫學 耳鼻咽喉科學 眼科學	515.1 치과의학 515.3 喉頭科學 515.4 耳科學 515.5 鼻科學 515.7 眼科學	519.5 한의치과 한의이비인후과학 한의안과학
516 婦人科 產科學 小兒科學	516.1 부인과 기초학 516.2 부인과 임상의학 516.3 부인과 질환 일반 516.4 女性生殖器의 기능장애 516.5 產科學 516.8 產科 外科學 516.9 소아과 및 노인병 516.91-95 소아과 各科醫學 516.96 신생아의 질환 516.97 미숙아 조산아 516.98 노인병, 노인의학	519.6 한의부인과 한의산과학 한의소아과학

7) 519.7 細目 세분류의 변화

519.7 細目은 초판에서 제3판까지는 한의위생학의 항목으로 분류되었는데 의학의 요목 중 517 衛生學 · 公共醫學의 분류가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제4판에서는 特殊 한방主題 · 四象醫學의 항목으로 분류하며 그 세분류를 표13과 같이 제시한다. 기존의 519.7의 細目이던 한의위생학은 세분류 항목 중 519.76에 분류함을 밝히고 있다.

표 13. 519.7 特殊 한방主題 · 四象醫學의 세분류(KDC 제4판)

519.7 特殊 한방主題 · 四象醫學	
519.72 한의 法醫學	無範錄 · 洗冤錄 등을 포함한다.
519.74 四象醫學	四象醫學 一般 및 體質鑑別 등을 포함한다. 四象醫學의 觀點에서 다루어진 著作더라도 各 科別 한의학은 각 科에 분류한다.
519.76 한의 衛生學 [前 519.7]	
519.79 한의 獸醫學	

42)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집위원회편, 개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7), pp191 2.

KDC 4판의 분류표에 기준하여 517 주제하의 분류번호와 비교하여 보면 표14와 같은데 517 주제하의 세목의 분류 특성이 519.7하의 전개에 있어서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표 14. 517 위생 · 공공의학 및 519.7 특수 한방주제 · 사상의학의 세분류(KDC 제4판)

의학	한의학
517 위생학 · 公共의학	519.7 特殊 한방主題 · 四象醫學
517.1 행정 및 정책	519.72 한의 法醫學
517.2 민족위생	519.74 四象醫學
517.3 개인위생	519.76 한의 衛生學
517.4 환경위생	
517.5 식품위생	
517.6 방역	
517.7 위생검사 및 위생통제	
517.8 안전의학, 스포츠의학	
517.89 스포츠의학	
517.9 기타 위생상의 문제	
517.96 법의학	519.79 한의 獸醫學

즉 519.7 요목은 제4판 개정에 있어서 한의학을 학문적 특징을 반영하여 세목 및 세분류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이루어진 분야이며, 서양의학과 차별화되는 한의학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분류에 적용된 경우이다.

8) 519.8 한의약학 細目 세분류의 변화

한의약학의 세분류에 대하여 초판부터 제2판까지는 특별한 세부 규정이었다. 제3판에 이르러서야 “本草 · 漢方을 포함한다”라는 설명이 있을 뿐이다. 제4판에서야 표15와 같은 세분류가 제시된다.

표 15. 519.8 한의藥學의 세분류(KDC 제4판)

519.8 한의藥學 Pharmacology	
519.81 本草 藥材 一般	
519.82 藥材의 選別 加工	
519.822 採集法	
519.823 乾燥法	
519.825 貯藏法	
519.826 鑑別法	
519.828 修治法	
炮劑 · 製劑 등을 포함한다.	
519.83 本草 藥材	
519.85 方劑學	處方集 · 方藥集 · 驗方 · 密方 등을 포함한다.
519.86 處方 · 方藥	臨床 各 科에 해당되는 處方 · 方藥은 519.3-6 아래에 분류한다.
519.89 한약 毒物學	

표 16. 518 약학 및 519.8 한의약학의 세분류(KDC 제4판)

의학	한의학
518 약학	519.8 한의약학
518.1 약국(학) 관리	519.81 本草 藥材 一般
518.2 무기약품	519.82 藥材의 選別 加工
518.3 유기약품	519.83 本草 藥材
518.4 약제학	
518.5 약리학	519.85 方劑學
518.6 약품의 투여법	519.86 處方 · 方藥
518.9 독물학	519.89 한약 毒物學

KDC 제4판의 분류표에 기준하여 518 주제하의 분류번호와 비교하여 보면 표16과 같은데 518 주제하의 세목의 분류 특성이 519.7하의 전개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으나, 한의학의 특성이 고려되어 적용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9) 519.9 침구학 細目 세분류의 변화

침구학의 세분류에 대하여 제2판부터 제3판까지는 별도의 설명 혹은 세분류항목의 설정이 없다. 제4판에 이르러서야 표17과 같은 세분류가 제시된다.

표 17. 519.9 침구학의 세분류(KDC 제4판)

519.9 鍼灸學 Acupuncture and moxibustion
519.91 鍼法
鍼의 種類 · 施術法 등을 포함한다.
519.92 經穴 · 經絡學
519.924 經穴圖
519.93-96 各科 鍼灸學
513-516과 같이 細分한다. 例 : 小兒鍼灸學 519.969
519.97 體質鍼法
519.98 藥鍼療法
穴位療法 · 經絡療法
519.99 기타 鍼療法
519.992 手指鍼
519.994 耳鍼
519.996 頭鍼

3. 한국십진분류법(KDC) 중 한의학 세목 전개의 문제점 및 개선안

KDC 제4판의 한의학세목 전개 및 세부분류 전개가 제3판까지 보다는 한의학의 의견이 반영되어 전개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의학의 세부전개에 의거하여 전개되며 분류의 실제에 있어서도 의학에 분류함을 우선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십진분류법해설』을 살펴보면, 510 의학의 해설에서 “한의학을 주로 다룬 저작이라도 서양의학이 일부라도 포함되었다면 서명속에 ‘한의’ ‘한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여기에 분류한다.⁴³⁾”라고 하여 한의학전문서적의 체계적 분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과, 519.01 한의학이론의 해설에서 “한의에 응용되는 기초이론이라도 한의학적 편향을 띠지않은 경우에는 여기에 분류하면 안된다.classification⁴⁴⁾”라고 한 것이나, 519.3-6 각과 한의학의 해설에서 “필요에 따라 513-516과 같이 세분한다.⁴⁵⁾”라고 한 것, 519.79 한의수의학의 해설에서 “단 일부라도 서영의학에 기반한 수의학의 내용을 담고있는 경우 528 수의학에 분류한다.⁴⁶⁾”라고 설명한 점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이러한 사항은 한의학의 학문성 및 역사성을 분류법 체계속에서 담아내지 못하며, 각 도서관 현장의 분류행위에서 오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한의학의 연구결과물을 효과적으로 분류하지 못하여 타분야와의 상호협력연구관계를 구축하거나 전통의학을 연구하는 외국의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구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된다.

43)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회, 개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7), p188.

44) 앞의 책, p194.

45) 앞의 책, p195.

46) 앞의 책, p195.

KDC의 제 4판의 한의학분야의 세목 설정을 살펴보면, 한의기초학, 한의임상학, 각과 한의학(내과 · 외과 · 치과학 · 이비인후과학 · 안과학 · 부인과 · 산과학 · 소아과), 특수 한방주제 · 사상의학, 한의약학, 침구학의 분야로 분류된다. 이는 510 의학 約目的 요목 분류에 준하여 분류한 것이며, 한의학의 학문성 및 현장성을 반영한 세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동일한 학문적 토대로 전통의학을 발전시켰던 한국 · 중국 · 일본은 역대의 의학서적에 관한 書目을 각각 지니고 있으나, 세부 분류하여 항목별로 기록한 것은 중국에서 나타난다. 筆者는 中國을 對象으로 하여 《漢書 · 藝文志》부터 近世까지의 政府에서 編撰한 史書 및 書目類의 書籍 중에 수록된 重要 醫學書目的 내용을 研究한 논문에서

13. 基礎醫學理論 · 診斷 · 鍼灸 등의 書籍에 관한 분류는 《漢書》 아래로 《新唐書》까지는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지는 못했으나 鍼灸學 및 經穴學 발달의 영향으로 項目的 命名에 있어서 明堂 및 經脈이라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다. 기초의 학서적을 세분화하여 기록한 것은 《通志》의 기록에서 나타난다. 《通志》에서는 脈經 · 明堂鍼灸 · 五藏 · 痘源의 네 부분으로 세분하여 기록하였다. 이는 宋代 의학이 唐代까지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이론의 연구와 발전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진단방법에 있어서는 맥진을 중시하였고 질병 인식의 폭이 확대되어 많은 새로운 질병과 증후를 기록하였던 사실의 반영으로 보여진다. 《文獻通考》와 《宋史》에서는 세부분류항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 《國史經籍志》에서는 經論 · 明堂鍼灸의 두 부분으로 분류하여 서적을 기록하였는데 經論은 脈經 · 痘源 · 五藏 · 理論書 · 診斷書籍 · 運氣書籍 등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通志》의 脈經 · 痘源 · 五藏의 분류내용이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通志》 이후에 《國史經籍志》가 편찬되어질때까지의 의학상황이 內經과 傷寒論에서 언급한 기본이론과 임상이론을 기초로 하여 당대의 경험적 의학지식과 결합시킨 새로운 痘因病機論이 다수 발생한 것을 계통적으로 수용해낼 수 있는 능력의 미비로 인한 분류라고 여겨지며, 運氣書籍을 일정한 배열순서로 기록한 것이 새로운 특징이라 하겠다. 《明史》 및 《青史稿》에서는 세부분류항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14. 本草 분야는 《漢書 · 藝文志》의 經方 項目에 최초로 기록되며, 隋唐代의 本草學 발달에 힘입어 일찍 독립된 항목으로 발달하였다. 《通志》는 本草 · 本草音 · 本草圖 · 本草用藥 · 採藥 · 炮炙의 여섯분야로 가장 세분화하여 분류하였고, 《國史經籍志》는 本草 및 種采炮炙의 두 분야로 분류하였다.

15. 方書 분야는 《漢書 · 藝文志》의 經方 項目에 최초로 기록되며, 《舊唐書》는 單方 · 類聚方의 독립된 항목으로 분류하기 시작하여 《通志》와 《國史經籍志》는 方書 · 單方 · 胡方(或 夷方) · 嶺南方의 네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16. 婦人科 분야는 《漢書 · 藝文志》의 經方 項目에 최초로 기록되며, 《通志》는 婦人으로, 《國史經籍志》는 婦女의 독립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17. 小兒科 분야는 《漢書 · 藝文志》의 經方 項目에 최초로 기록되며, 《通志》 및 《國史經籍志》에서 小兒의 독립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18. 外科 분야는 《漢書 · 藝文志》의 經方 項目에 최초로 기록되며, 《通志》 및 《國史經籍志》에서 瘡腫의 독립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19. 《漢書·藝文志》에서 房中·神僕으로 분류한 서적의 분야는 《隋書·經籍志》에서는 醫方의 부류에서 배열하였고 《舊唐書·經籍志》는 房中の 서적은 雜經方에 神僕의 서적은 雜經方과 養生의 항목에 기록하였다. 《新唐書·藝文志》는 醫術의 항목에 세부분류없이 나열된 형태로 기록하였으며 《通志·藝文略》과 《國史經籍志》는 養生 및 寒食散 부문이 房中·神僕의 계통으로 보이며, 《文獻通考·經籍考》·《宋史·藝文志》·《明史·藝文志》·《青史稿·藝文志》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하여 볼 때 房中과 神僕의 항목은 초기에는 의학의 한 분야로 발달되었으나 金元代 이후에는 의학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

20. 專門分野의 분류항목 반영여부를 살펴보면 《隋書·經籍志》에서는 食經·寒食散·獸醫學·養生·香熏의 서적을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배열한 것으로 보아 독립한 분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舊唐書·經籍志》에서는 食經·養生·病源이 나타나고, 《新唐書·藝文志》에서는 醫術類 중에 痘源·養生·食經·寒食散·脚氣의 분류형태가 나타난다. 《通志·藝文略》에서는 寒食散·病源·五藏·傷寒·脚氣·瘡腫·眼藥·口齒·食經·香熏·粉澤 등의 분류가 나타나며, 《文獻通考·經籍考》에서는 痘源·運氣의 반영이 나타난다. 《國史經籍志》에서는 寒食散·傷寒·脚氣·瘡腫·眼藥·口齒의 반영이 나타나며, 《青史稿·藝文志》에서는 溫病·眼科의 반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⁴⁷⁾

라고 하여, 중요서목서적에서 중국의학이 각 분야별로 다양한 세분류를 전개하며 기록된 역사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학분야의 세분류 전개가 의학의 세분류항목에 의하여 전개되는 상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또 1999년에 발행된 「中國圖書分類法」 제4판 중국의학의 세목을 살펴보면 中醫豫防·衛生學, 中醫基礎理論, 中醫臨床學, 中醫內科, 中醫外科, 中醫婦產科, 中醫兒科, 中醫腫瘤科, 中醫骨傷科, 中醫皮科, 中醫五官科, 中醫其他科學, 中醫急症學, 中藥學, 方劑學, 中國少數民族醫學의 16개 항목으로 분류 전개하는데(표 18 참고), 이는 KDC 제4판의 한의학 분류에 비하여 더욱 세분화된 형태이다.

표 18. 「中圖法」 중의 R2 中國醫學의 基本類目 變化

細目	제1판(9세목)	제2판(11세목)	제3판(16세목)	제4판(16세목)
	1975	1980	1990	1999
21			中醫豫防·衛生學	中醫豫防·衛生學
22	中醫基礎理論	中醫基礎理論	中醫基礎理論	中醫基礎理論
23				
24	中醫臨床學	中醫臨床學	中醫臨床學	中醫臨床學
25	中醫內科	中醫內科	中醫內科	中醫內科
26	中醫外科	中醫外科	中醫外科	中醫外科
271	中醫婦產科	中醫婦產科	中醫婦產科	中醫婦產科
272	中醫兒科	中醫兒科	中醫兒科	中醫兒科
273		中醫腫瘤科	中醫腫瘤科	
274		中醫骨傷科	中醫骨傷科	
275		中醫皮科	中醫皮科	
276	中醫五官科	中醫五官科	中醫五官科	中醫五官科
277	中醫其他科學	中醫其他科學	中醫其他科學	中醫其他科學
278	中醫急症學	中醫急症學	中醫急症學	中醫急症學

47) 拙稿, 中國醫學分類에 關한 研究, (의산: 원광대학교, 1997) pp106·108.

28	中國少數民族 醫學	中國少數民族 醫學	中藥學	中藥學
289			方劑學	方劑學
[29]	中草藥·方書	中草藥學·方書	(932)	(932)
29			中國少數民族 醫學	中國少數民族 醫學

표 19. 519 한의학 세목 전개 개선안

분류번호	KDC 제4판	개선안	분류번호	비고
519.1	한의기초학	한의기초학	519.1	원전, 상한·금궤, 음양·오행·육기 ·운기학설, 한의생리학, 한의병리학, 각기학설 등의 한의기초학 등을 여기에 분류한다.
519.2	한의임상학	한의임상학	519.2	한의진단학, 한의치료학, 한의약물요법, 한의이학요법, 한의간호학, 의안 의학 등을 여기에 분류한다.
519.3		장부병증	519.31	간담계병증, 심계병증, 비위계병증, 폐계병증, 신계병증 등을 여기에 분류한다.
519.4	각과 한의학	일반병증	519.35	
519.5		외감병증	519.36	
519.6	각과 한의학	한의신경정신과학	519.37	
519.7		한의재활의학과	519.41	
519.8		한의외과학	519.42	
519.9		한의피부과학	519.43	
		한의치과학	519.51	
		한의이비인후과학	519.52	
		한의안과학	519.57	
		한의부인과	519.61	
		한의산과	519.65	
		한의소아과	519.691	
		노인병 노인의학	519.698	
	특수한방주제 사상의학	한의법의학	519.72	
		사상의학	519.74	
		한의위생학	519.76	
		한의스포츠의학	519.78	
		한의수의학	519.79	
	한의약학	본초학	519.81	
		방제학	519.82	
	침구학	경혈학	519.91	
		침구학	519.92	

한편 1997년 대한한의학회에서 간행된 『한의과대학 학습목표』를 통하여 현대 한국의 한의학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학습목표 설정의 교과목으로는 한의사국가시험과목이거나 한방과목으로 전국11개 한의과대학에서 공통으로 개설하고 있는 원전, 상한론, 생리학, 병리학, 본초학, 방제학, 경혈학, 진단학, 예방의학 등 기초의학 영역의 9개 교과목과, 간·심·비·폐·신·계·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신경정신과학, 사상의학, 재활의학과학, 안이비인후과학, 외과학 등 임상영역의 13개 교과목을 신정하였다.⁴⁸⁾

48) 전국한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의과대학 학습목표-기초의학편·1996년 개정판, (서울: 대한한의학회, 1997) 한의과대학학습목표 발간 경과 中

라고 하여, 기초 9개 교과목 및 임상 13개의 교과목이 현재 각 한의과대학에서 교육중인 표준교과목임을 밝히고 있는데 KDC 제4판의 한의학분류전개는 현대의 한의학교육의 현장성 조차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KDC 제4판의 한의학분야 세목을 한의기초학, 한의 임상학, 각과 한의학(내과·외과·치과학·이비인후과학·안과학·부인과·산과학·소아과), 특수 한방주제·사상의학, 한의약학, 침구학의 현행 항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현대 한의학의 현장성(9개 기초 및 13개 임상의 표준교과목) 및 학문적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본다.

즉, 세목의 분류번호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519.3-6까지의 각과 한의학세목을 의학의 세부분류항목번호를 참고하면서도 한의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519.31 장부병증, 519.35 일반병증, 519.36 외감병증, 519.37 한의신경정신과학, 519.41 한의재활의학과, 519.42 한의외과학, 519.43 한의피부과학, 519.51 한의치과학, 519.52 한의이비인후과학, 519.57 한의안과학, 519.61 한의부인과, 519.65 한의산과, 519.691 한의소아과, 519.698 한의 노인병·노인의학의 14개 항목으로 세분하며, 519.7 특수한방주제·사상의학 세목은 519.72 한의법의학, 519.74 사상의학, 519.76 한의위생학, 519.78 한의스포츠의학, 519.79 한의수의학 등으로 세분하며, 519.8 한의약학은 519.81 본초학과 519.82 방제학으로, 519.9 침구학은 519.91 경혈학과 519.92 침구학으로 각각 세분하여 분류하며, 519.1과 519.2의 요목은 KDC 제4판의 분류를 유지하되 세부 전개에 있어서는 한의학의 특성에 맞는 세분류 분야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본다.(표19 참고)

결 론

한국의 표준도서분류법인 한국십진분류법 중 519 한의학의 세목분류전개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얻었다.

한국십진분류법의 한의학 분류법은 의학분류의 세부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한국십진분류법의 한의학 세부분류는 의학 세부분류의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에서 한의학의 특성이 반영된 일부 세부분류항목이 신설되었으나, 한의학의 학문성 및 현장성을 수용하지는 못하였다. 한국십진분류법의 한의학 세부분류는 기존의 표준도서분류법의 항목배정의 규칙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한의학의 기초의학·임상의학·한의약학·특수주제의 네부류로 구별한 후 한의학의 학문성과 역사적 발전 상황 및 현대 한의과대학 표준교과목의 현장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의 한의학분야 중 519.1 한의기초학에는 원전, 상한·금궤, 음양·오행·육기·운기학설, 한의생리학, 한의병리학, 각가학설 등을 분류할 수 있는 세분류를 하여야 한다. 한국십

진분류법 제4판의 한의학분야 중 519.2 한의임상학에는 일반적인 개념의 한의진단학, 한의치료학, 한의약물요법, 한의이학요법, 한의간호학, 의안·의화 등을 분류할 수 있는 세분류를 하여야 한다.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의 한의학분야 중 519.3-6 각과 한의학에는 특정과로 구분되어 있는 장부병증, 일반병증, 외감병증, 한의신경정신과학, 한의재활의학과, 한의외과학, 한의피부과학, 한의치과학, 한의이비인후과학, 한의안과학, 한의부인과, 한의산과, 한의소아과, 한의노인병·노인의학 등을 분류할 수 있는 세분류를 하여야 한다.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의 한의학분야 중 519.7 특수한방주제·사상의학에는 한의법의학, 사상의학, 한의위생학, 한의스포츠의학, 한의수의학 등을 분류할 수 있는 세분류를 하여야 한다.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의 한의학분야 중 519.8 한의약학은 본초학과 방제학으로 각각 세분류를 하여야 한다.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의 한의학분야 중 519.9 침구학은 경혈학과 침구학으로 각각 세분류를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國內外 書籍

1. 도태현.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3.
2. 정필모. *문화정보학원론*.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1996.
3. 오동근·배영활·여지숙 공저. KDC의 이해. 대구; 도서출판 태일사. 2002.
4. 韓國圖書館協會 分類委員會 編. *韓國十進分類法 第4版 第1卷 本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1.
5.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편. 개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7.
6. 전국한의과대학교육협의회. *한의과대학 학습목표-기초의학 편*. 1996년 개정판. 서울; 대한한의학회. 1997.
7. 中國圖書館分類法編輯委員會·中國醫學科學院信息所圖書館編. *中國圖書館分類法·醫學專門分類表*. 북경; 북경도서관출판사. 1999.

◇ 論 文

1. 임동빈. 古書의 十進分類法의 接近. 청주; 청주대학교. 1985
2. 권영규. *한국십진분류법(KDC)의 한의학분류에 대한 소고*. 동서의학 13권 3호. 대구; 경산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1988
3. 권영규. *한국도서분류법의 한의학분야 개정안에 관한 연구*, 동서의학 21권 2호. 대구; 경산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1996
4. 振稿. 1997. *中國醫學書目의 分類에 關한 研究*. 익산; 원광대학교
5. 이선영. 1993. *한의학분류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